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

역사와 현재

목차

아우슈비츠 수용소 건설 이전	3
나치 이데올로기	3
제2차세계대전 발발	3
히틀러의 집단수용소	4
아우슈비츠 1940-1945 - 수용소 개요	4
건설	4
인근지역주민 집단강제이주	5
확장	6
아우슈비츠 수용소 보조시설	7
외부세계와의 단절	7
수용소 내부 및 주변 지역에서의 저항 운동	7
집단수용소 아우슈비츠	8
유대인 학살의 장소 아우슈비츠	9
해방	12
아우슈비츠 집단수용소 희생자수 및 희생자 국적 현황	12
추모의 장소 및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박물관 건립	13
박물관 정식 개관 이전	13
박물관 정식 개관	13
박물관 면적 및 구성	14
박물관 예산	14
오시비엔침 국제자문위원회	15
아우슈비츠 대학살 국제교육센터 계획위원회	15
박물관 활동 분야	16
수집활동	17
문서고	17
수용소 생존자들과의 접촉	18
디지털영상기록센터	19
도서관	19
수집품 및 수용소 시설 보존작업	20
보존작업실	20
아우슈비츠 역사조사연구소	20
전시와 추모	22
아우슈비츠 제1집단수용소 구역 내 일반 전시관	22
비르케나우(BIRKENAU) 추모의 장소	23
국립 전시관	23
상설 및 순회 전시	24
출판물	24
인터넷	25
교육 활동	25
아우슈비츠 대학살 국제교육센터MCEAH의 구성	25
강제 수용소 관람	26
개방 시간	27
아우슈비츠 - 현 세계에 중요한 장소	27
관람 - 일반사항	28
아우슈비츠 제 1수용소 구역	28
아우슈비츠 제 2번- 비르케나우	28
가이드	28
안내책자	29
다큐멘터리 영화	29
수용소 간 이동	29
아우슈비츠 역사 - 연대기	30

아우슈비츠 수용소 건설 이전

“유대민족은 완전히 멸종시켜야할 인종이다”

-독일군 폴란드 총독 Hans Frank-

“폴란드인, 러시아인, 유대인, 집시로부터 독일민족을 해방시켜야한다”

-독일 제3제국 법무부장관 Otto Thierack-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폴란드 저항세력지도자들의 색출이다...이를 통해 그들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다...모든 폴란드 출신 기술자들을 독일군수산업에 투입시켜야 한다. 결국 이들 폴란드 기술자들 역시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SS 친위대장 Heinrich Himmler-

나치 이데올로기

나치 이데올로기는 공산주의, 유대인 및 민주주의에 대한 증오와 독일민족의 우월성 진파라는 기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민족순수성 유지를 위해 독일 나치주의자들은 유대 민족, 슬라브 민족, 집시 민족 등에 대한 집단학살을 계획했다.

나치 독일의 게르만 민족을 위한 새로운 정착지 확보라는 목표가 이들의 침략주의 및 제2차세계대전 발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1933년 독일 정권을 차지한 나치당(NSDAP) 당수 히틀러는 1937년 11월 당시 계획된 전쟁의

사진: 해외리버리움, 폴란드



1937년 뉘른베르크 나치당 집회.

“전세계가 두려워하는 청소년들을 키울 것이다. 나는 폭력성과 지배력과 잔인함과 잔혹함을 갖춘 젊은이를 원한다”는 내용의 히틀러 연설에 환호하는 히틀러 청소년당(Hitlerjugend)당원들.

목적을 새로운 정착지 확보로 규정하였다.

제2차세계대전 발발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이 있는 직후인 9월17일 소련에 의한 폴란드 공격이 개시되었다. 폴란드 남부지방 작은 소도시 오시비엡침(Oświęcim)은 침공 후 독일 제3제국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전쟁 발발 직전인 1939년 8월 맺어진 독소간

비밀조약에 근거하여 폴란드 중부 지방에는 나치 행정경찰기구인 총독부가 설치되었으며 동부지방은 소련 영토로 편입되었다. 1941년 독소전쟁 발발 후 독일은 소련 편입 지역을 점령하였다.

폴란드 전역을 점령한 독일은 유

럽 전역을 대상으로 침공을 시작했다. 1940년 4월 덴마크, 노르웨이, 1940년 5월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프랑스, 1941년 4월 유고슬라비아, 그리스를 점령한 독일은 1941년 6월 당시 독일의 동맹국이었던 소련을 침공하였다.

아우슈비츠는 유럽 점령국들의 거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까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제3국과 위성국, 회색은 점령국 또는 독일 통치 하에 있던 지역을 나타낸다. 1939년 이전 국경.



히틀러의 집단수용소

최초의 집단수용소는 이미 1933년 독일 영토에 세워졌다. 이들 수용소에는 나치제국에 반대했던 정치범, ‘원치 않았던 요소’로 분리된 사람들 및 유대인들이 감

금되었다.

아우슈비츠 집단수용소(KL) 역시 여타 수용소들과 마찬가지로 독일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국가기관의 성격을 지녔다. 아우슈비

츠 수용소는 SS 중앙경제행정국(WVHA)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았으나 수감자 호송 및 대량학살은 제국중앙안보국(RSHA)에 의해 이루어졌다.

아우슈비츠 1940-1945 수용소 개요

건설

나치 독일의 아우슈비츠 집단수용소는 대학살의 대명사로 전세계에 알려지고 있다. 1940년 중반 독일 제3제국의 영토로 편입된 폴란드 오시비엥침(Oświęcim)시 외곽에 건설된 수용소는 오시비엥침시의 독일어 개칭 명칭 아우슈비츠의 이름을 따서 아우슈비츠 집단수용소로 명명되었다.

독일 경찰에 체포된 폴란드인 수

의 급격한 증가 및 이들을 수감하기 위한 장소의 필요가 수용소 건설의 직접적 원인이었으며 초창기 수용소는 이미 1930년대부터 나치 폭정 시스템의 한 요소로 존재해왔던 여타 집단수용소들과 동일한 역할을 담당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이 같은 기능은 유대인 대량학살장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한 1942년 이후

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아우슈비츠 집단수용소 경비는 애초 나치당 지도부의 경호를 위해 조직된 정예 친위대 SS(Schutzstaffeln)병력이 담당했다. SS는 초창기 조직 목적과는 달리 국가 행정, 경찰, 군부에까지 그 역할이 확장되어 집단수용소 경비임무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독일 제3제국의 영토로 편입된 폴란드 오시비엠크(Oświęcim)시 외곽에 건설된 수용소는 오시비엠크시의 독일어 개칭 명칭 아우슈비츠의 이름을 따서 아우슈비츠 집단수용소로 명명되었다.

사진. SS 권위대



SS 수용소 경비대.

수용소 가동 당시 8천 명 가량의 SS 대원이 교대로 수용소 내에 주둔해있었다.

SS대원들은 수용소 통제임무, 감시탑 경계임무 및 유대인, 수감자 학살 임무를 담당했으며 이들은 전원 독일인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독일국적부(Volkliste)에 서명한

독일 혈통을 증명할 수 있는 제3국 국민들 역시 수용소 감독 SS대원으로 고용되었다. 수용소 존재 기간 중 총 8천 여명의 SS대원 및 감시요원이 아우슈비츠에 상주했다.

사진촬영자 모를



타르누프 시. 폴란드 정치범들이 아우슈비츠 집단수용소 입소 전에 독일경찰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1940년 6월 14일 타르누프 교도소에서 수용소로 이들을 첫 이송하여 도착했다.

인근지역주민 집단강제이주

1940-1941년 사이 독일은 수용소 위치 지역주민들 및 인근 8개 마을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켰다. 또한 전쟁 전 오시비엠크 주민의 60%를 차지했던 유대인들을 전원 유대인 집단거주지역인 게토(getto)로 강제이주시켰으며 많은 폴란드인들은 독일로 보내져 강제노동에 종사시켰다.

수용소 건설을 위해 인근 1천2백여 채의 가옥이 철거되었으며 수용

소 지원시설, 창고, 사무실 건물 및 SS 숙소가 추가로 건설되었다. 또한 일부 주택들은 SS장교와 가족, 독일인 이주민, 관리 및 경찰들이 거주하였다. 전쟁 전부터 존재해왔던 산업시설의 일부는 독일 제3제국 군수공장으로 탈바꿈했으며 잔여 시설들은 폐쇄되었다. IG Farbenindustrie 화학공장의 경우 폴란드인, 러시아인, 프랑스인 등 총 1만1천여 명이 강제노동에 종사했다.

사진촬영자 모를



수용소 인근 폴란드인의 강제이주. 세계대전 당시 사진.



사진촬영자 모를

1941년 4월 독일이 오시비엡침에서 유대인들을 강제이주 시키는 모습. 세계대전 발발 전 거주민 1만 2천 명 중 유대인은 7천 명이었음.



사진. SS 전위대 1943년

수용소 목욕 시설 건설 중. 뒤로 보이는 건물은 가스실과 4번과 5번 소각장 (나무들 사이).



사진. 위성된 독일 문서 모본본

확장

오시비엡침이 독일의 유럽 점령지의 중심 및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해 독일 정권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대규모 확장 및 전유럽으로부터의 강제이송을 계획하게 되었다. 최대 인원 수용기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3개로 분리되어 관리되었다.

- 1 아우슈비츠 제1수용소(일명 Stammlager) : 수용인원 1만 2천~2만명. 1940년 중반에 기존 존재했던 폴란드 군대 막사를 수용소로 개조.
- 2 아우슈비츠 제2수용소 비르케나우 : 1944년 최대인원 수용 당시 9만명 수감. 1941년 가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부터 3km 떨어진 브제진카 마을 주민들의 강제이주 및 주택 철거를 통해 조성

된 부지에 만들어짐. 비르케나우 수용소는 당시 나치에 의해 만들어진 유럽최대규모의 유대인 학살장소로서 가스실이 위치하고 있었음.

- 3 아우슈비츠 제3수용소 모노비츠 (일명 Buna) : 1944년 여름 최대인원 수용 당시 1만1천명 수감. 1942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부터 6km 떨어진 모노비츠 마을 화학고무 및 정유공장인 Buna-Werke 인근에 보조수용소로서 건설됨. 전쟁 발발 후 독일 IG Farbenindustrie 공장으로 이용. 1944년 Buna 보조수용소는 독립된 수용소로 전환되었으며 모노비츠 수용소로 명명되었으나 여전히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보조기능 역할을 담당함.

1944년 연합군이 촬영에 성공한 항공사진. 아우슈비츠 제1수용소와 제2 브제진카 수용소, 제3 모노비츠 수용소, IG Farben 화학 공장 등이 보인다.

노동수용소 체비니아. 수십 개의 보조 수용소 중 하나.



사진촬영자 모를

아우슈비츠 수용소 보조시설

1942년~1944년 사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보조 역할을 위한 총 47개의 보조수용소가 건설되었다. 이들 수용소에는 독일의 광

산, 제철소 및 상부실롱스크지역 산업시설들이 들어섰으며 이밖에도 농장 시설 역시 위치하고 있었다.

1943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모노비츠 등 3개의 대규모 수용소 및 보조시설로 구성되어 있었다.

외부세계와의 단절

독일은 아우슈비츠 및 보조시설들을 철조망 등을 이용하여 외부와의 관계를 철저히 단절시켰다. 또한 수감자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외부인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행정시설 및 SS본부(일명 Interessengebiet)는 수용소와

는 별도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비르케나우 수용소를 따라 펼쳐진 인근 40평방킬로미터의 부지에 마련되었다. 이 밖에 수용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10개의 보조시설 역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통제를 받았다.

수용소 내부 및 주변 지역에서의 저항 운동

수용소의 열악한 생활환경 및 억압에도 불구하고 수감된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 산발적 또는 조직적으로 벌어진 저항 움직임이 바로 이 같은 존엄성 유지를 위한 노력 중 하나였다. 또한 수감자들은 병약한 동료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했으며 군사적,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의 형태로도 전개되었다.

수감자들에 의한 첫 번째 저항 활동은 이미 1940년 하반기에 당시 수감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폴란드인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1942년 말 1943년 초에는 제3국 출신 수감자들에 의한 저항단체 역시 조직되었으며, 1944년에는

일명 '특수부대(Sonderkommando)' 수감자들이 봉기를 일으켜 SS 대원 수 명을 죽이고, 소각장 한 개소를 파괴하였다.

저항의 형태 중 빼놓을 수 없는 활동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내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히틀러 군대에 의한 범죄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수용소 주변 지역에서 활동했던 저항단체와 수감자들 사이에 구축된 연락체계가 중요한 몫을 차지했다.

독일에 의해 수용소가 건설된 직후부터 이미 주변 지역 폴란드인 주민들은 위협을 감수하며 수감자들에게 식료품, 의약품을 전달했으며 수감자들의 탈주를 돕기도 하였다.

사진, SS 권위대



수용소에 등록된 수감자 사진: 유대인 소년, 집시 소녀, 폴란드 소녀.

유대인을 도와준 혐의로 체포된 폴란드 수감자의 개인 신상 카드.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국립박물관 문서고



비톨드 필레츠키. 폴란드 정치범이자, 수용소 내 저항운동 창설자 및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서 수용소 외부로 보낸 비밀 보고서를 작성했다.

스타니스와프 구트키에비츠 1942년 아우슈비츠



집단수용소 아우슈비츠

독일에 의해 건설된 수용소 중 가장 큰 규모로 만들어진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존재 기간 내내 기본적으로 집단수용소의 역할을 수행했다. 수용소 초기 시절 독일 정권은 위험계층으로 분류해 체포한 사람들, 주로 폴란드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냈다. 이들 중에는 폴란드 엘리트 계층, 정치·사회·종교계

지도자, 지식인, 문화·교육계 인사, 저항단체 소속 인물 및 군 장교들이 포함되었다.

1940년 6월14일 728명의 정치범들을 태운 첫 번째 호송열차가 타르누프 (Tarnów) 시로부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도착했으며 바로 이날을 수용소 정식 가동일로 간주한다. 점령기간 내내 히틀러의 군대에 의해 체포된 폴란드인들이 수용소로 보내졌다. 이들 이외에도 불심검문과 감시활동으로 검거된 사람들, 독일인 거주자들을 위한 거처 마련 차원에서 강제이주된 가족들 및 1944년 바르샤바 봉기 당시 체포된 사람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독일 정권은 폴란드인들 이외에도 제3국 점령지에서 체포한 사람들, 예를 들어 집시, 소련군 전쟁포로들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냈다. 수용

소로 보내진 사람들에게는 수감번호가 부여되었다. 1942년부터는 학살 대상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대규모 이송되기 시작했으며 SS 소속 군의관들은 이들 중 노동이 가능한 인력과 생체실험 대상으로 사용될 사람들을 따로 분류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송된 1백만명 이상의 사람들 중 유대인 20만명, 폴란드인 15만명, 집시족 2만3천명, 소련군 전쟁포로 1만5천명 등 총 40만명이 수감번호를 부여받았다. 이중 50% 이상이 기아, 강제노동, 가혹행위, 사형, 질병, 전염병, 형벌, 고문 및 생체실험 등으로 사망했다. 또한 다른 수용소 등으로 이송된 약 20만명의 수감자들은 대부분 그곳에서 사망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해방되었을 때 그곳에는 단 7천 여명만이 생존해 있었다.



사진. SS 친위대



조피아 슐렌더, 바르샤바 1944년 아우슈비츠

에드워드 갈린스키(폴란드 정치범)과 말라지메트바움(벨기에 출신 유대인). 이들은 1944년 여름 아우슈비츠에서 탈출했으나, 2주 후 이 두 연인은 게슈타포에게 체포돼 사형당했다.

아우슈비츠 집단수용소 수감자 분류

★	유대인	수감번호 부여자 약 20만명. 1942년부터 이송되기 시작한 유대인들은 수감자들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음.
▼	정치범	약 16만명. 독일군에 의한 진압작전 또는 저항운동 중 체포된 사람들로 대부분이 폴란드인.
▼	비사회계층 수감자	수감번호 부여자 약 2만1천명. 주로 집시.
SU	소련군 전쟁포로	약 1만5천명. 이중 1만2천명에게 수감번호 부여.
EH	단순교화대상자	실제 또는 조작된 노동수칙 위반자.
PH	경찰체포자	수천여명의 폴란드인. 아우슈비츠 수용소 정식 수감자 신분은 아니며 카토비체, 미스워비체 등지에서 게슈타포에 의해 체포되어 형식적인 재판 및 즉결처분 대기자 신분.
▼	형사범	수백여명의 독일인 죄수들. 독일군은 이들 중 일부를 SS 보조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선발.
▼	종교적 양심수	주로 독일 국적으로 최소 138명이 양심수로 파악됨.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수감.
▼	동성연애자	독일 국적의 수백명의 동성연애자.



아우슈비츠 제2 비르케나우 수용소. 헝가리에서 이송된 유대인들이 플랫폼에 내리고 있다. 멀리 구석에 보이는 건물이 가스실과 소각장이다.

유대인 학살의 장소 아우슈비츠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1942년부터 유럽 거주 유대인 학살이라는 또 다른 기능을 수행했다. 이들은 연령, 성별, 직업, 국적, 정치적 견

해를 불문하고 오로지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단 학살되었다. 이송된 사람들 중 SS 소속 군의관에 의해 노동부적합계층으로 분

류된 병약자, 노약자, 임산부, 아동 등이 가스실에서 학살되었다. 이들은 수감번호 부여작업 등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스실로 끌려갔다.



비르케나우 수용소 내 제 2 가스실과 소각장 건물 내 소각로.



사이클론 B 용기와 기화 가스가 함유된 규조토 알갱이.



1944년 5월, 6월 히틀러의 군대는 약 44만명의 헝가리 거주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송했다. 당시 아우슈비츠 제2수용소 비르케나우에서 독일군에 의해 촬영된 200여장의 사진 속에는 새로 도착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력 분류작업, 죽음이 기다리는 가스실로 향하는 사람들, 그리고 학살된 사람들의 소지품 분류작업의 모습 등이 담겨있다.





아우슈비츠 이송 유대인 국적별 분류 (전쟁 전 국경 기준)

헝가리	43만8천명 ^b
폴란드	30만명
프랑스	6만9천명
네덜란드	6만명
그리스	5만5천명
체코, 모라비아	4만6천명
슬로바키아	2만7천명 ^b
벨기에	2만5천명
독일, 오스트리아	2만3천명
유고슬라비아	1만명
이탈리아	7천5백명
라트비아	1천명
노르웨이	690명
기타 집단수용소 출신 및 국적 미확인자	3만4천명
합계	110만명

^a 전쟁 전 국경 기준

^b 전쟁 당시 국경 기준

연구조사, 프란시세크 피페르





비에르케나우. 가스 질식사한 유대인 시신을 공터에서 소각하고 있다.



수용소 해방으로 자유의 몸이 된 비르케나우 수용소 수감자들.

1944년 여름,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Sonderkommando)가 비밀리에 촬영해 정당한 사건, 폴란드는 저항단체 덕분에 수용소 외부로 전달됨.

소련군 촬영팀이 촬영한 필름 중 한 장면

소련군 촬영팀이 촬영한 필름 중 한 장면

해방

1944년 말 소련군이 수용소 인근까지 진격하자 독일군은 그들에 의해 자행된 범죄의 흔적을 없애는 작업에 착수했다. 관련 문서들은 폐기처분 되었으며 수용소 시설들은 해체, 소각 또는 폭파되었다. 소련군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크라쿠

프(Kraków)시를 점령하자 독일군은 도보이동이 가능한 수감자들을 1945년 1월17일~21일에 걸쳐 독일 제3제국 방면으로 이동시켰다. 1945년 1월27일 소련군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점령했을 때 수용소에는 단 7천 여명의 수감자들만이 생존해있었다.

아우슈비츠 집단수용소 희생자수 및 희생자 국적 현황 아우슈비츠 수용소 희생자 현황 (최소 숫자 기준)

국적	이송된 숫자	등록된 수감자수	희생자수
유대인	110만명	20만명	1백만명
폴란드인	14만~15만명	14만명	7만~7만5천명
집시	2만3천명	2만3천명	2만1천명
소련군 전쟁 포로	1만5천명	1만2천명	1만4천명
기타	2만5천명	2만5천명	1만~1만5천명
합계	약 130만명	약 40만명	약 110만명

유대인, 폴란드인, 집시, 소련군 전쟁포로 이외에도 독일군은 체코인 7천명, 벨로루시인 6천명, 프랑스인 4천명, 독일 및 오스트리아인 2천5백명, 러시아인 1천5백명, 슬로베니아인 8백명, 우크

라이나인 6백명 등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시켰다. 국적별 수십~수 백명의 소수 수감자들을 감안했을 때 수감자들은 유럽 거의 전지역으로부터 끌려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945년 1월 25일 생존자 7천 명 중에는 아이들은 300명 정도였다.



추모의 장소 및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박물관 건립

박물관 정식 개관 이전

수용소 해방과 전쟁 종결 수 개월 후 수용소 폴란드인 생존자들은 아우슈비츠 희생자 추모의 의의를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다. 추모사업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자 생존자들 중 일부는 잔존 수용소 시설 및 폐허 등을 보존하기 위해 수용소에 상주하였다. 이들은 수용소에서 희생당한 가까운 일가친척의 명복을 빌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오시비엡침 수용소 보전 상설위원회’를

조직해 활동했다.

아우슈비츠 생존자들은 박물관 정식 개관 이전 개최를 목표로 비공식 전시회를 준비했으며 그 결과 1947년 6월14일 생존자, 희생자 가족, 폴란드 정부대표단, 주폴 영국, 체코슬로바키아, 프랑스 대사관 관계자, 독일전쟁범죄조사중앙위원회 및 유대인역사중앙위원회 관계자 등 5만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박물관 정식 개관

1947년 7월2일 폴란드 하원은 ‘수용소 부지, 시설 영구보전에 관한 법령’을 통과시켰고 이로써 ‘오시비엡침-브제진카 국립박물관’이

정식 개관하게 되었다. 1999년에는 박물관의 명칭이 현재의 ‘오시비엡침 소재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국립박물관’으로 변경되었다.

박물관 명칭 및 역할 논란

1947년 폴란드 하원을 통과한 관련 법령에 의거 박물관은 수용소 터 및 관련 시설 보전, 아우슈비츠에서 자행된 독일전쟁범죄 관련 증거 수집, 학술연구 및 관련 자료 공개 임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박물관 업무 및 향후 확장계획을 두고 수용소 생존자, 박물관 관계자, 보전전문가, 역사학자, 교육계 인사 및 언론사 간 이견이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이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개관 당시 박물관의 역할을 단순한 과거 기록으로 한정할 지 아니면 조직적 전쟁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까지 포함시킬 지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일부에서는 전면적인 수용소 터 발굴작업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가능한 모든 시설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자는 의견 역시 제시되었다.

또한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국립박물관이라는 명칭 자체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학살당한 희생자들의 공동묘지라고 주장, 추모의 장소라는 주장, 희생자 진상규명 및 교육기관이라는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다. 실질적으로 박물관은 현재 상기 제시된 모든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존재한다.

수용소 해방 후 발견된 나치에 의한 희생자 집단 매장지.



수용소 해방 후 발견된 나치에 의한 희생자 집단 매장지.

수용소 해방 시점에 사망한 희생자 장례식.



수용소 해방 시점에 사망한 희생자 장례식.

191헥타르에 달하는 아우슈비츠 및 비르케나우 수용소 터에 조성된 박물관이 1947년 7월 정식 개관했다. 1979년 폴란드측의 요청에 의해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UNESCO 세계유산목록에 정식 등재되었다.

해방 후 발견된 아우슈비츠 희생자들의 신발.(전시물 중 일부)



사진, 비에스와프 지엠티스키

박물관 면적 및 구성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국립 박물관은 오시비엥침에 위치한 아우슈비츠 제1수용소와 브제진카에 위치한 제2수용소 비르케나우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940년대 후반 진행된 박물관 부지 선정작업에는 많은 협의가 필요했다. 특히 아우슈비츠 제1수용소로부터 멀게는 수 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수용소 보조시설의 수용 여부가 관건이었다. 결국 191헥타르 면적의 아우슈비츠 제1수용소와 제2수

용소 비르케나우만을 박물관으로 조성한다는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이와 같은 결정을 통해 유대인 대량학살시설과 150개 이상의 보조시설과 수감동, 화장실 건물, 관리동, SS 막사, 새 수감자 대기동, 경계탑, 수용소 정문, 십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수용소 담장 및 철조망 시설, 내부 도로, 비르케나우 수용소 내부 기차역 하차장 등이 보존되었다. 또한 소련군에 의한 수용소 해방 직전 수백명의 수감자들이 매장된 공

동매장지 역시 원형 그대로 보존되었다.

SS는 학살 흔적을 없애기 위해 수용소 시설 대부분을 소련군 진격 이전인 1944년~1945년 1월에 걸쳐 파괴되거나 해체했다.

2002년 제2수용소 비르케나우에 위치한 가스실(일명 빨간 집) 인근이 새롭게 박물관 시설로 편입되었으며 2004년에는 Stary 극장(전쟁 기간 중 창고 위치)과 인근 지역이 역시 박물관에 편입되었다.

박물관 예산

박물관은 폴란드 문화재관리청에 소속되어있다. 1990년대 들어서 비로소 시설 보수 및 유지를 위한 국제기금의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Ronald F. Lauder 재

단 후원으로 박물관에서 전문 보존실이 생겼다. 독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기타 국가 정부와 프랑스 Shoah재단 등의 여러 국제적 재단의 지원, 그리고 개인 단위의

기부를 통해 수용소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2008년도에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재단이 설립되었다. 설립 목적은 ‘추모지’ 보조 예산 충분히 확보하여 다음 세대에도 아우슈비츠 관람객들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저지른 만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목적에 따라 1억 2천 유로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기금이조성되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추모지에 대한 보조에 문제가 없게 될 것이다. 기금은 고정 자본금이 되고, 추가수익금으로 매월 필수요소에 대한 보조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수용소(막사와 감시탑을 포함

아우슈비츠 제 1 수용소 지역의 현재 항공사진.



사진: 보이치에흐 고트프렐로프스키

한 건물 155동) 200헥타르, 건물
폐허 300개(가스실 포함), 수 킬로

미터의 도로와 철조망, 다른 수용
소 인프라 요소, 또한 기록물과 유

물 등 유적 전체의 유지보수 또한
가능해 질 것이다.

오시비엔침 국제자문위원회

1990년 폴란드 문화예술부는
수용소 생존자, 역사학자 및 외국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오시비엔침박
물관 국제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켰
다. 동 자문위원회는 인근 슈퍼마켓
건설, 카르멜 수녀원 문제, 자갈밭
지역 십자가 건설 등 직간접적으로
박물관과 연계된 다양한 사안의 해
결을 위한 자문 역할을 맡고 있다.

2000년 폴란드 총리는 임
기 6년의 ‘오시비엔침 국제자문
위원회’의 구성을 발표했다. 오
시비엔침 국제자문위원회는 기
존 오시비엔침박물관 국제자문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
에 히틀러에 의해 만들어진 아우
슈비츠 수용소 및 폴란드 전국
에 현재까지 남아 있는 집단수

용소 시설의 유지보전을 담당하
고 있다.

2006년 프랑스, 이스라엘, 독
일, 폴란드, 우크라이나, 미국 및
영국 대표들로 구성된 새로운 위원
회가 구성되었다. 또한 동 위원회
의 위원장은 수용소 수감자 출신인
브와디스와프 바르토셰프스키 교
수가 임명되었다.

아우슈비츠 대학살 국제교육센터 계획위원회

2005년 폴란드 문화부장관
은 역시 같은 해 만들어진 아우
슈비츠 대학살 국제교육센터 산

하에 계획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동 계획위원회는 아우슈비츠 회
생자들에 관한 역사를 다음 세대

에 전달하는 교육활동을 전담하
고 있다.

아우슈비츠 제2 비르케나우 수용소 지역의
현재 항공사진.

사진: 보이치에호 고트클레프스키





프란치셰크 야지비에츠키, 자화상.

이우슈비츠-미에르케나우 국립박물관 문서고

박물관 활동 분야

아우슈비츠 박물관은 수용소 희생자들의 유품 발굴 및 보존 작업, 수용소 시설 유지보존작업, 학문연구와 연구결과 공개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아우슈비츠 해방 후 수용소 건물 및 주변지역에서 유대인 희생자들의 성명 및 거주지 주소가 적혀 있는 여행용 가방, 유대교 종교행사 제례복, 의족, 의수, 안경, 신발 등 수많은 유품들이 발견되었다. 이들 유품들은 현재 아우슈비츠 제1수용소에 전시되어 당시 벌어졌던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다.

박물관에는 이들 유품 이외에도 각종 문서와 사진들 및 당시 수감자들이 감시의 눈길을 피해가며 만든 예술품과 해방 이후 역시 수감자들이 만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해방 직후 수용소 생존자들이 그린

회화, 스케치 작품들은 당시 수용소 모습과 수감자들의 수감생활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박물관 설립 작업에 참여했던 예술가 및 관계자들이 작품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또한 박물관은 수용소 설립 당시 작성된 독일측 관련 문서, 수용소 내부와 인근에서 벌어졌던 저항 활동 관련 문서, 생존자들의 회고기록, 다른 국가들에서 벌어졌던 만나치주의 활동 증언, 그리고 전세계에서 발행된 아우슈비츠 수용소 및 만나치주의에 관련된 출판물들을 수집하고 있다.

아우슈비츠로 이송된 유대인들의 가방들.



사진. 마그다 헤밀레비츠-피우로



사진. 리샤르트 도마시크

아우슈비츠 수감자가 전쟁 중 수용소 수감 당시 제작한 작품 2천여 점 포함 수용소 관련 예술작품 6천여 점이 수집보관 중이다.

수집활동

박물관 ‘수집부’는 수용소 시설, 수감자들의 유품, 수용소 및 인근 지역에서 발견된 관련 물품들을 수집, 보존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사람들을 통해 기증된 물품들 역시 박물관 수집부서에서 관리한다.

박물관 주요 수집품들은 다음과 같다.

- 신발류 8만여 점
- 성명, 주소가 적혀있는 가방 2천 1백여점이 포함된 가방 3천8백여 점
- 그릇, 접시류 1만2천여 점

- 안경 4만여 개
- 의족, 의수 460점
- 수감복 570점
- 기성복 260점
- 탈럿(유대인이 기도할 때 머리에 쓰는 천) 260점
- 비르케나우 제2수용소 창고(일명 캐나다)에서 발견된 40입방미터 규모의 희생자 철제 유품
- 수감자, 생존자 작품 2천여 점 포함 수용소 관련 예술작품 6천여 점
- 약 2톤에 달하는 여성수감자들의 머리카락

문서고

박물관 ‘문서고’는 수용소 관련 독일측 공식문서 원본, 국내외 여러 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수용소 관련 문서 사본, 독일전범재판문서, 수용소 내부 및 인근에서 벌어진 저항운동 관련 기록, 생존자 및 기타 사람들의 회고기록, 사진, 마이크로필름, 사진 원판, 기록영화, 연구출판물, 평론, 보고서, 영화 시나리오 등을 소장하고 있다.

주요 소장품목은 다음과 같다.

- 관리 목적으로 독일측에 의해

촬영된 새로 수감된 사람들의
증명사진 원판 3만9천여 장

- 독일군이 1944년 헝가리로부터 끌려온 유대인들을 촬영한 사진 200여 장, 가스실 주변 작업자들이 독일군의 감시를 피해 촬영한 사진 수 점, SS대원들에 의해 촬영된 수용소 시설 사진 500여 장, 주로 뱃진, 소스노비에츠 지역에서 끌려온 유대인들이 소지했던 가족사진 2천5백여 장, 1944년 연합



1945년 1월 소련군이 진격해오자 독일군이 퇴각하면서 불을 질러 불타고 있는 수용소 창고. 나치는 수용소 내 범죄 흔적을 모두 없애지는 못했다.

Officer	Serial #	First Name	Last Name	DOB	DOB	DOB	DOB	DOB	DOB
Section 1 - Police Officers									
Officer	1001	John	Smith	1955	03	15	1955	03	15
Officer	1002	Jane	Smith	1955	03	15	1955	03	15
Officer	1003	John	Smith	1955	03	15	1955	03	15
Officer	1004	Jane	Smith	1955	03	15	1955	03	15
Officer	1005	John	Smith	1955	03	15	1955	03	15
Officer	1006	Jane	Smith	1955	03	15	1955	03	15
Officer	1007	John	Smith	1955	03	15	1955	03	15
Officer	1008	Jane	Smith	1955	03	15	1955	03	15
Officer	1009	John	Smith	1955	03	15	1955	03	15
Officer	1010	Jane	Smith	1955	03	15	1955	03	15
Section 2 - Police Officers									
Officer	2001	John	Smith	1955	03	15	1955	03	15
Officer	2002	Jane	Smith	1955	03	15	1955	03	15
Officer	2003	John	Smith	1955	03	15	1955	03	15
Officer	2004	Jane	Smith	1955	03	15	1955	03	15
Officer	2005	John	Smith	1955	03	15	1955	03	15
Officer	2006	Jane	Smith	1955	03	15	1955	03	15
Officer	2007	John	Smith	1955	03	15	1955	03	15
Officer	2008	Jane	Smith	1955	03	15	1955	03	15
Officer	2009	John	Smith	1955	03	15	1955	03	15
Officer	2010	Jane	Smith	1955	03	15	1955	03	15
Section 3 - Police Officers									
Officer	3001	John	Smith	1955	03	15	1955	03	15
Officer	3002	Jane	Smith	1955	03	15	1955	03	15
Officer	3003	John	Smith	1955	03	15	1955	03	15
Officer	3004	Jane	Smith	1955	03	15	1955	03	15
Officer	3005	John	Smith	1955	03	15	1955	03	15
Officer	3006	Jane	Smith	1955	03	15	1955	03	15
Officer	3007	John	Smith	1955	03	15	1955	03	15
Officer	3008	Jane	Smith	1955	03	15	1955	03	15
Officer	3009	John	Smith	1955	03	15	1955	03	15
Officer	3010	Jane	Smith	1955	03	15	1955	03	15

1941년 9월 26일 아우슈비츠로 이송된
수감자 명단.

군 비행기에 의해 촬영된 수몰
소 항공사진 수십 장, 해방 이후
생존자들에 의해 촬영된 사진

- 수용소 관련 서류 : 수용소에서 사망, 살해된 7만여 수감자들의 사망진단서철 48권, 독일 SS중앙건설위원회 및 오시비엔침시 경찰 작성 수용소 건설, 확장공사, 인프라시설 및 오시비엔침시 확장사업계획이 포함된 서류철 248권

생존자 관련 정보

수용소 생존자와 관련된 정보 제공을 원하는 사람은 박물관 ‘생존자 정보실’을 직접 방문 또는 서면 등을 통해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정보제공의사 접수 후 박물관측은 수용소 관련 문서 보존절차에 근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많은 문서들이

전쟁 기간 중 독일군에 의한 파괴되었으며 또한 등록되지 않은 수감자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는 관계로 정확한 희생자 파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등록되지 않은 수감자들은 수용소 도착 후 곧바로 가스실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대부분이다.

디지털영상기록센터

아우슈비츠 수용소 관련 자료들의 디지털화 작업은 희생자 기록장기보존이라는 차원에서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현재 디지털 영상기록센터에는 56개 수용소

보조시설 관련 정보 포함 총 50만여 항목이 저장되어 있다. 소위 전자문서고는 컴퓨터를 통한 신속한 정보 확인 및 분석을 가능하게 만든다.

도서관

박물관 산하 도서관은 주로 2차대전, 대학살, 아우슈비츠 수용소 및 수감자, 반유대주의, 인종차별주의를 주제로 한 출판물들을 소장하고 있다. 소장 도서 중 3만여권 이상이 2차대전 중 벌어진 저항활동, 독일 제3제국 및 신나치주의 관련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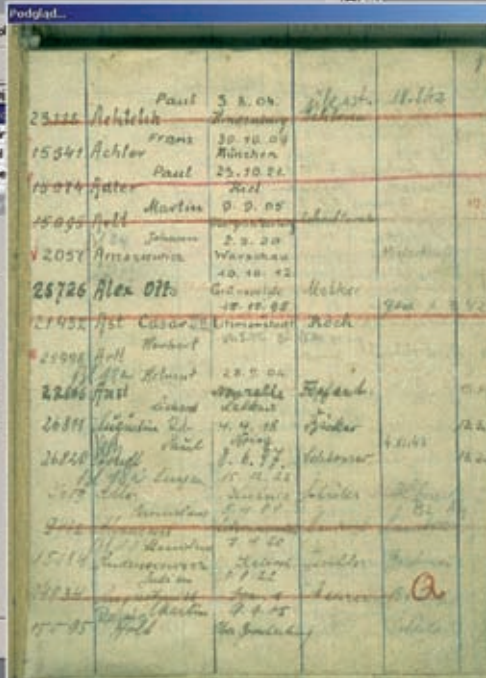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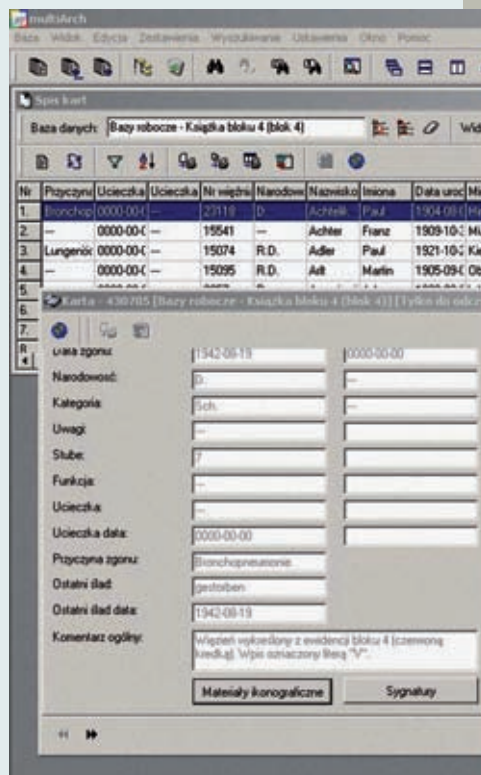
또한 도서관은 기록문서와 학술서적 이외에도 전쟁 관련 회고록, 소설, 시, 연극대본, 지도, 백과사전, 일반 사전류 및 정기간행물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독일 제3제국 당시 발간된 서적과 간행물들을 별도 보관하고 있다.

아우슈비츠-비에르케나우 국립박물관 관련 문서고



전쟁 후 수용소 지역에서 발견된 노트. 유대인 수감자로 구성된 주로 소각장에서 학살된 시신을 소각 처리하는 일을 했던 일명 ‘특수부대(Sonderkommando)’가 전쟁 당시 기록한 것이다. 수감자의 증언과 함께 이 문서는 나치의 전쟁 범죄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사진에 보이는 직접 손으로 쓴 흔적의 주인은 알 수 없다. 유대어로 손수 기록한 이 노트는 1952년 제3 가스실 폐허 근처에서 발굴되었으며 가스실에서의 유대인 학살 과정 등이 기록되어 있다.

디지털기록센터는 수감자와 아우슈비츠 이송자 기본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책임지고 있다.



수집품 및 수용소 시설 보존작업

현재 아우슈비츠 박물관 지역에는 150개 이상의 수용소 시설, 비르케나우 제2수용소 위치 4개의 가스실, 소각장을 비롯한 300여 개의 수용소 폐허, 총 연장 13km에 달하는 3천6백 개의 철조망 설치용 시멘트 기둥 및 기타 시설들이 보존되어 있다.

박물관 지역 내에는 현재 150개 이상의 건물, 수감동, 수용소 보조 시설들과 비르케나우 제2수용소 위치 4개의 가스실, 소각장을 비롯한 300여 개의 수용소 폐허 등이 보존 관리되고 있다. 이 밖에도 총 연장 13km에 달하는 3천6백 개의 철조망 설치용 시멘트 기둥 및 기타 시설들 역시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총 200ha에 달하는 수용소 내에는 수 킬로에 달하는 내부도로, 배수로, 철도 측선

및 플랫폼, 램프시설, 2개의 하수 처리장, 옥외 방화수 저장시설 등이 남아 있다. 또한 수용소 내 녹지 및 역사적 가치를 지닌 나무들과 전쟁 후 조성된 20ha에 달하는 주변 숲지대 역시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도 수용소 관련 문서들, 희생자들이 소지했던 가재도구, 사진, 예술작품들도 보조 관리 대상이다. 박물관에서는 당시 수용소 수감자들이 만든 예술작

품 2천 여점, 수용소 보조시설에서 만들어진 작품 4천 여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보존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박물관은 토론 미코와이 코페르닉 대학, 크라쿠프와 바르샤바 예술아카데미, 독일 쾰른 Fachhochschule, 실롱스키 공대, 시비엥토크루츠키 공대, 바르샤바 농경제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발전된 보존프로젝트 연구 및 학생실습과정을 마련하고 있다.

보존작업실

2002년 만들어진 아우슈비츠 박물관 보존작업실은 폴란드에 존재하는 시설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박물관 보존작업실은 이미 8만여 점의 수용소 희생자 신발류의 소재 및 보존작업을 수행한 바 있으며 비르케나우 제2수용소 가스실 철구조물 잔해와 독일의사 Clauberg의 생체실험용 산부인과

진료용 의자, 수 십 여 점의 휠체어, 폴란드 및 해외에서 전시 중인 스케치, 그림 등의 보존작업 역시 박물관 보존작업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밖에도 보존작업실은 박물관 문서고에 보관 중인 전쟁 당시 원본 문서들의 보존처리작업 등을 수행했다.

아우슈비츠 역사조사연구소

아우슈비츠 박물관 소속 역사전문가들은 수용소 희생자 신원파악, 현재까지 연구가 미흡했던 수용소

관련 기타 역사 및 독일 SS친위대 조직 연구, 아우슈비츠 역사 관련 정보의 출처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보존작업실.



사진. 폴란드 쾰른 미코와이 코페르닉 대학



사진. 리사토르드 도마지코

수용소 감시탑 중 하나. 보존 담당 부서에서는 수용소 보조 시설과 수용소 지역의 보호, 보존 업무를 맡고 있다.

비르케나우 보조 수용막사 보존 작업.



사진. 폴란드 쾰른 미코와이 코페르닉 대학

박물관의 연구조사업무는 이미 1950년대에 시작되었다. 초창기 업무는 수용소 관련 역사출판물, 생존자 증언 및 아우슈비츠 관련 연구논문 출판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 결과 첫 번째 성과물인 다누타 체흐 작 ‘오시비엥침-브제진카 집단수용소 연대기’가 출간되었다. 이후 끊임없는 보충작업을 거쳐 1989년 독일에서 단행본으로 만들어졌으며 이어 폴란드(1992년), 미국(1997년)에서도 출판되었다.

또한 60년 대 말과 70년 대에는 아우슈비츠 보조수용시설, 수용소 내부 저항운동 및 비르케나우를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와 동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 수감자 고용(저자:프란치šek 피페르)’, ‘수용소 해방과 정리, 수감자 구조(저자:안드제이 스트렐레츠키)’ 등에 관한 학술적 연구 역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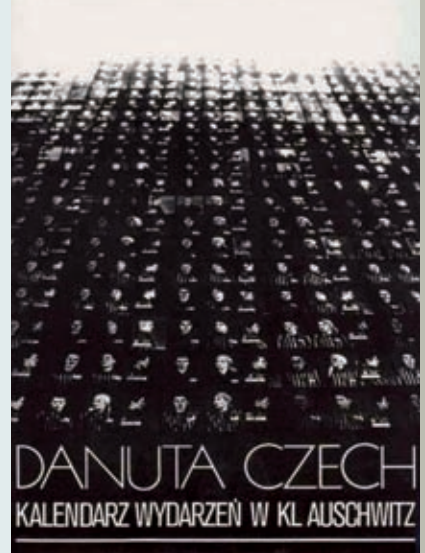
그 이후 수용소 관련 일반적인 역사 및 세부 사안이 중점적으로 연구되었으며 그 결과 수 권으로 이루어진 ‘아우슈비츠 사망진단서 명부’, ‘회고록’,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의 집시 수감자들’ 등이 발간되었다. 또한 ‘1940~1945 바르샤바로부터 아우슈비츠 집단수용소로 이송된 폴란드인’, ‘1940~1945 크라쿠프 및 폴란드 남부지역으로부터 아우슈비츠 집단수용소로 이송된 폴란드인’, ‘1940~1945 라돔 및 키엘체 지역으로부터 아우슈비츠 집단수용소로 이송된 폴란드인’ 등 3권의 회고록이 추가로 출판되었다.

상기 회고록은 이송된 사람들

의 숫자, 희생자 수 뿐 만 아니라 이송된 사람들의 개인신상명세 역시 최대한 많이 파악하여 그 내용을 수록했다. 이와 같은 저술 방식은 다른 출판물에도 적용되어 ‘선의의 사람들, 아우슈비츠 집단수용소 수감자들을 도운 오시비엥침 지역 주민들(저자:헨릭 시비에보츠키)’와 2권의 사진 앨범, 뱃진 지역으로부터 수용소로 끌려온 유대인들을 기록한 ‘그들이 떠나기 전’, 수감된 아동을 기록한 ‘그들을 잊지말자, 아우슈비츠 집단수용소의 어린 희생자들(저자:헨릭 쿠비차)’ 등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져 출판되었다.

박물관 소속 역사가들에 의해 출판된 기타 주요 서적들은 다음과 같다. ‘아우슈비츠 집단수용소 희생자 수(저자:프란치šek 피페르)’, ‘악탈된 희생자 유품(저자:안드제이 스트렐레츠키)’, ‘보조수용시설 Buna와 IG Farbenindustrie(저자:피오토르 세트키에비츠)’, ‘생체실험범죄(저자:이레나 스트렐레츠키)’, ‘1942~1943 아우슈비츠 자모시치 지역 폴란드 주민들(저자:헬레나 쿠비차)’, ‘유럽 점령지에서의 집시의 운명과 이들의 아우슈비츠 학살(저자:바츠와프 드우고보르스키)’, ‘아우슈비츠 집단수용소의 여호와 증인들(저자:테레사 본토르-치히)’, ‘수용소 내 저항운동, 기병대장 비톨드 필레츠키와 스테판 야신스키 전기(저자:아담 치라)’.

또한 박물관의 수 년 간의 작업 끝에 완성한 5권으로 이루어진 ‘아우슈비츠 1940~1945, 수용소 역사의 주요 논점’은 수 개국 언어로 출판되었다.



주요 출판물 중 하나인 아우슈비츠 집단수용소의 역사를 다룬 다누타 체흐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연대기’.



역사학자 헬레나 쿠비차의 수년간의 연구 성과인 아우슈비츠 집단수용소로 끌려온 아이들의 추모 사진집 “그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들 대부분은 수용소에 도착하자마자 히틀러 추종자들에 의해 죽어갔다.

전시와 추모

아우슈비츠 박물관의 특징

실재했던 지역과 건물들, 폐허, 대학살 범죄가 자행되고, 인종말살을 도모한 흔적이 남아있다. 그 중에서도 유골들이 있는 곳, 가스실과 화장터의 흔적, 가스실로 희생자들을 끌고 간 길, 온 가족이 죽음을 기다리던 곳, 수용소 내 저항운동과 처형이 이루어졌던 곳을 볼 수 있다.

아우슈비츠 제1집단수용소 구역 내 일반 전시관

1947년 아우슈비츠 제1수용소 구역 건물이 첫 전시 공개되었고, 1955년 전면 보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시관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두 가지 주요 기능, 즉 다국적의 수감자를 위한 집단수용소이자 유럽 지역 유대인 대학살의 최대 거점이었음을 보여준다.

집단 수용소

- 아우슈비츠 전시관은 가혹한 노동, 굶주림, 질병, 생체실험, 고문과 형벌 집행으로 인해 죽어간 수감자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수용소에서 죽어간 수감자 사진, 서류, 수감자들의 수용소 생활을 그린 작품도 전시되어 있다. 입장 가능한 건물은 수감자들과 수감자들을 돕다가 붙잡힌 외부인들이 수감되었던 실제 감옥과 감방이 보존되어 있다. 벽, 목조, 창틀 중에는 수감 당시 수감자들의 낙서와 그림이 남겨져 있다. 또한 저항운동, 형벌, 처형, 수용소 경비대에 의해 무작위로 희

생된 내용이 전시되어 있다. 지하실에는 SS친위대가 수용소 규칙을 위반하여 유죄 선고를 받은 수감자들을 감금했던 ‘형벌의 방’이 있다. 1941년에 이곳에서 굶겨 죽이는 아사형을 선고 받은 수감자들이 있었다. 그 중 폴란드인 막시밀리안 마리아 쿨베 수도사는 아사형을 받은 한 수감자를 살리기 위해, 그를 대신해 지하감옥에서 굶어 죽었다. 또한 1941년 가을 SS 친위대는 이 지하실에서 첫 번째 Cyklon B 독가스를 실험하면서 많은 수감자들을 학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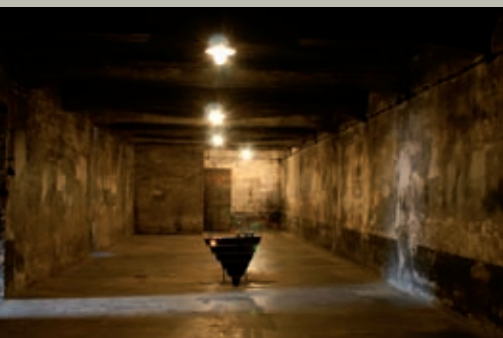
작전, 리타아 포리자크

아우슈비츠 해방 후 수용소 지역에서 발견된 생존자 유대인 사진. 비르케나우 수용소 목욕탕 건물이었던 곳 전시물 일부.



작전, 리타아 포리자크

박물관 전시물 중 가장 끔찍한 전쟁범죄 증거 중 하나인 2톤 가량의 여자 희생자 머리카락.



작전, 스타니스와프 모로조프

아우슈비츠 제 1 수용소에 있는 1번 가스실. 현 상태.

유럽 유대인 학살의 중심지

- 전시관에는 유대인들이 수용소에 화물열차로 강제 이송되어 SS 소속 군의관에 의해 분류된 다음, 가스실에서 학살 당한 후까지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잔혹한 전쟁범죄 전시물 중 하나는 2톤 가량의 희생자 머리카락이다. 그 외에도 탈릿(유대인이 기도할 때 쓰는 천), 안경, 수감자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여행

가방, 신발, 의수의족, 유아복, 식기류 같은 강제 이송되어 온 자들의 실제 개인 물건들이 쌓여있는 안타까운 광경도 볼 수 있다. 전시된 물건들은 독일군들이 미처 독일본토로 보내지 못했거나, 아우슈비츠가 해방되기 전에 증거 인멸을 위해 없애버리지 못한 유대인 희생자 물건들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비르케나우(Birkenau) 추모의 장소

실제 대다수의 아우슈비츠 희생자들은 비르케나우에서 학살당했다. 박물관의 성격이 결정되지 않아 전시물이 옮겨지지 않은 채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비르케나우 전시관은 전쟁 당시 수용소로 새로 강제 이송된 사람들을 등록하고 소독을 했던 일명 ‘사우나(Sauna)’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전시관이 개방되었다. 강제로 희생자들이 이송되었던 기차길을 따라가다 보면 실제 역사적인 장소를 돌아볼 수 있다. 맨 마지막 건물에는 아우슈비츠로 이송된 유대인들과 해방 후 구출된 수감자들이 지니고 있던 2천여 점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비르케나우 지역에서는 또한 수용소 희생자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

2005년에 강제 이송과 학살과 관

련된 두 개의 비극적인 장소에 추모행사가 있었다.

- 1942년 봄, 비르케나우 수용소 근방에 독일군에 의해 처음 건설된 빨간 집(Czerwony Domek)이라 불리는 가스실.
- 아우슈비츠와 비르케나우 지역 수용소 사이에 1942년 봄부터 1944년 5월까지 유대인과 집시, 폴란드인들이 수용소로 강제 이송되었던 열차 선로 측선, 일명 유대인 트랩(Judenrampe). 유대인 트랩에서 SS소속 군의관들이 새로 이송된 유대인들을 선별했다.



비르케나우.
제 3 가스실과 화장터 폐허.



비르케나우.
열차로 수용소에 이송된 사람들이 도착했던 플랫폼에 설치된 역사사진 전시관.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찍은 사진들.



나치가 수천 명의 수감자를 사살했던 ‘죽음의 벽’.

국립 전시관

또한 아우슈비츠 제1 수용소 지역 상시 전시관으로 운영되는 국립 전시관은 오시비엥침 국제 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여러 국가의 수감자 후손들에 의해 처음 설립되었으며, 국민들이 아우슈비츠로 강제 이송 당한 나치 점령국과 그 역사를 보여주고 널리 알리는 것이 그 설립 목적이다.

이 같은 형태의 첫 전시는 1960년에 이루어졌다. 수십 년 동안 어떠한 작은 손상이나 변화 없이 지금 그대로 보존되고 있으며, 아우슈비츠의 희생자였던 여러 나라의 전문 기관들에 의해 관리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국립 전시관은 박물관과의 교류 협력 관계에 있으며, 오시비엥침 자문 위원회의 공식 승인을 받았다.



사진: 비에스와르치 열린스키

아우슈비츠 제 2 비르케나우 수용소 터.
격리 구역의 막사들과 기타 수용 막사의
잔해들.



사진: 아르노 펠스펠트

“배반당한 국민” 전시물의 일부.
헝가리 출신 대량학살 희생자의 역사.



사진: 토마쉬 외델레위

출판물 발간의 목적은 수용소 희생자의
역사를 보존하고, 대량학살과 수용소에
서 저지른 나치의 전쟁범죄의 문서화, 그
리고 아우슈비츠에 관한 쟁점을 확산하기
위해서다.

관람 가능한 전시관은 아래와 같다.

- “1933년-1945년 유대인의 수난, 저항과 대학살”
- “1939년-1945년 폴란드 민족의 저항과 희생”
- “유럽 집시 대학살”
- “슬라브계 유대인의 비극”
- “아우슈비츠 강제 노동 수용소로 강제 이송된 체코 희생자”
- “배반당한 국민. 헝가리에서 강제 이송된 대학살의 희생자”
- “프랑스에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이송된 사람들”
- “1940년-1944년 벨기에.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점령과 강제 이송”
- “1940년-1945년 네덜란드 유대인 탄압과 강제 이송”
- 오스트리아, 유고슬라비아, 현 러시아, 이탈리아 등의 국가 전시관.

상설 및 순회 전시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박물관은
약 300회에 걸쳐 상설 및 순회전시
를 열어 1천5백만 명의 관람객이 다
녀갔으며, 오스트리아, 영국, 구 체코

슬로바키아, 독인, 이스라엘, 일본,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미국, 헝
가리, 이탈리아 구 소련 등 폴란드 외
부 국가에서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출판물

수 백여 개소에서 전체 약8만 부 가량의 출판물이 발간되었다.

출판물 발간의 목적은 수용소 희
생자의 역사를 보존하고, 대량학살
과 수용소에서 저지른 나치의 전쟁
범죄의 문서화, 그리고 아우슈비츠
에 관한 쟁점을 확산하기 위해서다.

출판물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학술논문과 순수문학, 기념서, 앨
범, 카탈로그, 안내책자, 시집, 포스
터, 그리고 수용소에 관한 다큐멘터
리 영화 등으로 제작되었다.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연대
기-다누타 체흐’, 다섯 권으로 구성
된 모노그래프 ‘아우슈비츠 1940-
1945-공저’, 여러 언어로 출판된 ‘아
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역사 이야기’
등이 주요 출판물로 꼽을 수 있다.

박물관 조사 연구원들의 연구성

과와 수용소의 다양한 역사적 국면
에 대한 각종 연구 조사가 포함된 정
기 학술지 ‘오시비엡침 노트(폴란드
어 및 독일어 판)’가 1957년부터 간
행되고 있다.

1944년부터 PRO MEMORIA라
는 회보가 발간되고 있으며,博物
관 활동과 교육, 정치, 사회 흐름에
정통한 폭넓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와 별도로 학술지 성격의 ‘오시
비엡침 노트’는 고등학생부터 전문
학자까지 다양한 독자를 위해 발간
되고 있다.

모든 출판물은 박물관 지역 내
판매처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또한
인터넷 서점을 통해 온라인 주문도
가능하다. (www.auschwitz.org.pl)

인터넷

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www.auschwitz.org.pl)를 통해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의 역사와 수용소에서 희생당한 10만여 명의 이름과 그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교통안내와 가이드 서비스 요금과 예약, 오시비엡침 시내 숙박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아우슈비츠 대학살 국제교육센터의 활동이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아우슈비츠 대학살 국제교육센터’ 홍보와 활동 상황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네티즌들을 위해 추모의 장소에서 열리는 주요 행사 안내, 박물관 구조, 각

2009년도 각 대륙별 관람객 수



몇 년 전부터 매년 전세계 백만 여명의 관람객이 수용소를 방문하고 있다

분야별 활동 상황, 과거와 현재 사진 갤러리도 준비되어 있다.

교육 활동

아우슈비츠 대학살 국제교육센터(MCEAH)

MCEAH는 대학원 교육, 세미나, 주제 회의, 현장 견학, 전문 강좌, 교사들과 폴란드 및 외국 청소년을 위한 워크숍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강의와 워크숍은 박물관 연구원과 전문 교육을 받은 강사들이 진행한다. MCEAH는 또한 관람객 서비스 관리도 담당하고 있다.

2005년 1월 27일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60주년 기념식이 진행되는 동안 수백 명의 생존자들이 아우슈비츠 대학살 국제교육센터 창설문서에 서명했고, 같은 해 5월 폴란드 문화부 장관은 이를 공식 승인했다.

MCEAH의 기본적인 활동 중 하나는 폴란드와 해외 학생들과 교사

들, 그리고 폴란드 및 해외 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이다.

진행되고 있는 교육 활동으로는 대중강좌와 강독회, 워크숍, 전문 강좌, 지도자 회의, 심포지엄 및 영화 시사회, 회화 콘테스트, 수용소를 주제로 한 작품 콘테스트 등을 들 수 있다.



아우슈비츠 역사를 좀더 상세히 알고 싶어하는 전세계 수만 여 네티즌이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있다

교육센터 활동의 하나인 청소년 교류 활동. 집시 전시관 관람 중인 모스크바 중고등학교 학생들.



사진: 모스크바 제653번 학교

MCEAH의 구성

- 대학원 교육

3학기로 이루어진 교사들을 위한 대학원 교육과정은 교육 당국의 공식 승인을 받았고, 크라쿠프 교육 아카데미와 교류 협력하고 있다. 나치의 만행과 유대인, 집시, 기타 희생자에 대한 대학살 행위를 배경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수용소와 수감자 역사를 다루고 있다. 전체 교육 과정 진행을 통해 인종차별주의, 반유대주의, 배타주의 같은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게 된다. 또한 제 2차 세계대전의 역

사와 결과에 대한 기본 쟁점과 유대인 민족의 문화, 문학, 예술, 철학과 같은 교과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강의진은 유명 역사학자, 사회학자, 문예학자, 기타 인문학의 대가와 박물관 연구원으로 구성되었다.

- 세미나

중고등학교 교사, 학생지도교사, 교리담당교사들이 인문학적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청소년들의 박물관 관람 준비를 개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세미나 프로그램에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내 각 국가 및 종교 단체의 역사를 주제로 한 강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대학살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 문서고와 수집부에서의 강연, 그리고 수용소 특별 관람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주제 회의

1일 간의 주제 회의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의 역사상 주요 쟁점을 다루며, MCEAH 주관으로 진행되는 교육과정 수료 예정자에 한 해서 아우슈비츠와 대학살 및 제 2차 세계대전에 관한 심도 깊은 학습을 원하는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다. 이 회의는 교과항목에 추가되고, 세미나와 대학원 교육과정으로 이어진다. 또한 학생 교육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 세미나와 폴란드 및 해외 학생들과 청소년을 위한 현장학습

세미나와 현장 방문 학습을 통해 독일의 폴란드와 유럽 침공 역사를 배경으로 아우슈비츠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연령, 관심도, 학생들의 기대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쟁점이 구성되어 있다.



사진: 바르토쉬 바르타셀

유럽 교사들을 위한 국제 세미나.

강제 수용소 관람

아우슈비츠 - 현 세계에 중요한 장소

지금까지 박물관과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추모의 장소에 전세계 3천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집단 수용소와 유대인 학살지였던 아우슈비츠는 현 세계에 특별하고 중요한 추모의 장소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지금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방문객 수는 이를 증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박물관과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추모의 장소에

전세계 3천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지난20세기부터 방문객 수가 꾸준히 증가해, 현재 연간 100개국 이상에서 100만 명여 관람객이 박물관을 방문하고 있다. 그 중 폴란드, 미국, 영국,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관람객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수용소 지역 방문을 도덕적 의무로 여기는 다수의 정치가와 국가 수장들이 수용소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수용소는 인류에게 보내는 가장 큰 경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수용소 생존자이며 폴란드 외무부 장관을 역임한 브와디스와프 바르토셰프스키는 이렇게 말했다. “오시비엔침은 그 누구에게 비석도 꽃도 놓을 데가 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무덤 없는 묘역이다. 무덤 없는 묘역, 몸이 재가 되어 하늘 아래 흩뿌려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기억되어야 한다.....”



사진: 오시비엔침 추모의 장소인 박물관의 입.

매년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추모의 장소에 전세계 백만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다. 두 개의 수용소 관람 시 박물관 면허를 소지한 가이드를 고용할 수 있다.

개방 시간

박물관은 일주일 내내 아래 시간과 같이 개방된다.

8:00-15:00	12월-2월
8:00-16:00	3월-11월
8:00-17:00	4월-10월
8:00-18:00	5월-9월
8:00-19:00	6월-8월

상기 개방 시간은 수용소 지역에 한한다. 수감자 정보 안내 사무소, 문서고, 수집관, 도서관, 관리사무소와 기타 구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개방된다. 1월 1일과 12월 25일과 부활절 연휴 첫 날에는 문을 닫는다.

관람 - 일반사항

두 개의 수용소 지역과 전시물을 관람하는 데 최소 3시간 반 정도 소요되나 관람객의 개인적인 관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이드와 동행하는 경우 일반관람(약 3시간 반 소요), 전문관람(약 6시간 소요) 또는 이틀 관람 코스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추모 지역은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아우슈비츠 제1수용소와 아우슈비츠 제2 비르케나우 수용소의 일정 구역을 관람할 수 있다. 아우슈비츠 제1수용소 일부 건물은 출입이 통제되고 있고, 아우슈비츠 제2 비르케나우 수용소의 막사 대부분은 출입이 가능하다. 수용소에서 일정 거리에 있는 아래 4개의 주요 추모의 장소도 둘러볼

수 있다.

- 비르케나우에 위치한 ‘빨간 집’이라 불리는 제1 가스실(비르케나우 북쪽 경계로부터 수백 미터 거리)
- 비르케나우에 위치한 ‘하얀 집’이라 불리는 제2 가스실(비르케나우 서쪽 경계로부터 수백 미터 거리)
- 1942년 봄부터 1944년 5월까지 유대인, 폴란드인과 집시가 수용소로



아우슈비츠 제 1 수용소



아우슈비츠 제 2 수용소.

- 이송되었던 ‘유대인 트랩’이라 불리는 열차 선로 측선(아우슈비츠와 비르케나우를 걸쳐 약 1.5km)
- 아우슈비츠 해방 직전, 직후 사망한 수감자들의 공동 묘역.



아우슈비츠 제1수용소(A)와 아우슈비츠 제2수용소(B)에서 일정 거리에 있는 박물관 보호 구역.

- 비르케나우 수용소 내 처음 건설된 두 개의 가스실이 있는 곳(1, 3).
- 이송자를 수송했던 열차 선로 측선(4).
- 소련군 포로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오벨리스크(2).
- 아우슈비츠 해방 직전과 직후에 사망한 수감자들의 공동 묘역(5).



기도할 때 쓰는 유대인 의상.
아우슈비츠 제 1 수용소 전시관
전시 일부.

사진. 아르코 헤르펠트

아우슈비츠 제 1수용소 구역

아우슈비츠 1번 수용소 지역은 SS 친위대가 남파 수감자(1940년)와 여자 수감자(1942년)들을 위한 수용소로 처음 만들어졌으며, 사이클론 B의 첫 살상 실험이 있었던 곳이다. 또한 첫 번째로 이송된 유대인을 학살한 곳이기도 하고, 수용소 내 첫 번째

생체 실험 범죄가 자행된 곳이며, 대부분의 총살형이 집행됐고, 용소 유치장이 자리했던 곳이며, 수용소 관리소와 대부분의 SS 사무실이 있던 곳이다. 나치는 이곳을 거점으로 수용소 단지를 계속해서 확장 운영했다.

아우슈비츠 제 2번- 비르케나우

나치는 약 백만 명의 유럽지역 유대인들을 학살한 대부분의 살상 시설을 비르케나우 수용소에 건설했다. 비르케나우는 가장 큰 집단 수용소였고(300개 이상의 대부분 원시적인 목조 건물), 1944년 9만 명의 유대인, 폴란드인, 집시, 구 소련 국적자와 기타 수감자들이 수감되었던 곳이다. 재가 되어버린 희생자들과 해방 당시 생존

자 대부분이 이곳에서 발견되었다.

10여 개의 원시적인 수감자 막사와 폭파된 100여 개 건물 잔해, 13km의 수용소 울타리, 10km의 수용소 도로, 오로지 인간을 학살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이용된 아우슈비츠 집단 수용소로 인간 수송을 담당한 2km의 열차 선로 측선 등 잔혹한 장소이다.



비르케나우 수용소 수용 벽돌 막사 내부.

사진. 비에스와프 지엘린스키

가이드

두 개의 수용소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박물관의 자격증을 소유한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야만 역사적으로 중요한 정보와 원활한 전시관 안내를 받을 수 있다(단체 관람할 경우도 의무적으로 가이드와 동행해야 한다).

또한 영어, 크로아티아어, 체코어, 프랑스어, 히브리어, 스페인어, 네덜란드어, 일본어, 독일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세르비아어, 슬로바키아어, 스웨덴어, 헝가리어와 이탈리아어 등 외국어 안내도 받을 수 있다.



비르케나우.
수용소 희생자 국제 추모비.

사진. 리사르트 도마시크

가이드 예약:

- 인터넷 예약 (reservation@auschwitz.org.pl)
- 전화 예약: (+48) 33 843 21/844 81 00/ 844 80 99 - 전화 상담시간, 월요일-금요일, 7.00-15.00, 그 이후. (+48) 33 844 81 02 - 전화상담 시간은 박물관 개방시간과 같음.
- 팩스 예약: (+48) 33 843 22 27
- 매표소 현장에서도 일정 형식에 의해 신청할 수 있다. 단 많은 관람객이 다녀가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는 것이 좋다. 가이드 안내는 유료이다.

안내책자

관람 전에 수용소와 관람실, 아우슈비츠와 비르케나우 관람 루트가 표시된

지도가 실린 십여 개국 언어로 발간된 박물관 안내 책자를 구입할 수 있다.

다큐멘터리 영화

입장권을 구입한 후 수용소 지역 관람 전이나 관람 후, 소련군 촬영담당이 촬영한 영상과 소련군에 의한 수용소 해방에 관한 소개,

구출된 수용자와 이곳에서 발견된 범행 증거 등이 담긴 15분짜리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수용소 간 이동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비르케나우 수용소까지 3킬로미터 정도의 거리는 도보로 이동할 수 있고, 수용소까지 이동 중에 독일군이 점거한 공장, 작업장, 창고, 사무실, 수용소 설비실 있는 곳을 지나게 된다. 이곳에서 수감자들은 노동과 죽음을 강요당

했다. 또한 열차 선로 변에는 사람들을 열차로 이송해서 SS소속 군의관이 선별 작업을 했던 플랫폼이 남아있다. 두 수용소 근처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고, 아우슈비츠와 비르케나우 수용소 사이를 운행하는 셔틀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우슈비츠가 있었다는 것을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날지는 오직 자신들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을, 오직 인간만이 이런 비극을 만들었고, 오직 인간만이 비극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브와디스와프 바르토체프스키 교수 - 아우슈비츠 수용소 생존자)



사진. 리디아 포리차크 사진. 야르코 멘스펠트

아우슈비츠 비극의 역사에 대한 관심은 시간이 흘러도 줄어들지 않는다.



박물관
주소:

Memorial
Auschwitz
Birkenau
State Museum

PAŃSTWOWE MUZEUM
AUSCHWITZ-BIRKENAU
ul. Więźniów Oświęcimia 20
32-603 Oświęcim, Polska
tel. (+48) 33 843 20 22
fax (+48) 33 843 19 34 / 843 18 62
www.auschwitz.org.pl
e-mail: muzeum@auschwitz.org.pl

연구조사: Teresa Świebocka, Jadwiga Pinderska-Lech, Jarko Mensfelt
번역: 정마그다, 정성웅, 남창현
그래픽 및 조판: Agnieszka Matuła, Grafikon
인쇄: **Grafikon** Jaroszwice 324, 34-100 Wadowice, tel. (+48) 33 873 46 20,
fax (+48) 33 873 46 22, e-mail: biuro@grafikon.com.pl, www.grafikon.com.pl
그래픽 자료: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의 역사와 현재.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국립 박물관 수집부):
도와주신 분들: Ryszard Domasik, Lidia Foryciarz,
Wojciech Gorgolewski, Nel Jastrzębiowska, Henryk Marewicz,
Jarko Mensfelt, Stanisław Momot, Rafał Pióro, Mieczysław Stec,
Wiesław Zieliński, 오시비엥침 청소년 만남의 집, 모스크바 제 653 학교.

© 2010 Państwowe Muzeum Auschwitz-Birkenau

아우슈비츠 역사 - 연대기

1939년

- **9월 1일** - 독일 나치의 폴란드 공습. 제 2차 세계대전 발발.
- **연말** - 대규모 폴란드인 체포와 구르니 실롱스크와 자그웁비아 동브로브스키 형무소 수용인원이 초과하여 SS 사령부와 브로츠와프 경찰청은 폴란드인 수용시설을 계획하기 시작.

1940년

- **4월 27일** - SS 사령관 하인리히 히믈러는 여러 시설을 조사한 후 당시 아우슈비츠로 불리던 오시비엥침 폴란드 포병 부대 지역에 집단 수용소 건설 지시.
- **6월 14일** - 독일 당국에 의해 소수 유대인이 포함된 폴란드 정치범 728명 아우슈비츠로 첫 이송. 이 날을 수용소 운영의 시작으로 인정. 1940년부터 1945년 사이 약 40만의 수감자 등록. 이중 남자 수감자는 27만 명.
- **6월 19일** - 앞으로 일어날 범죄의 목격자 제거와 수감자와의 접선 및 수감자의 탈주 방지를 목적으로 지역 주민 첫 추방. 이후 추방은 아우슈비츠 확장 계획에 의해 이루어짐. 이에 독일인들이 오시비엥침에서 이주하고, 주변 시골마을에서 최소 5천명의 폴란드인이 이주함. 또한 유대인을 포함한 오시비엥침 주민이 주변 게토 지역으로 이송됨. 오시비엥침 시 지역과 수용소와 직접 닿아있는 이웃 8개 시골마을이 사라지고, 100채 이상의 건물이 파괴됨.
- **7월 6일** - 첫 탈주자(타데우쉬 비

에요프스키) 발생. 수용소 역사상 백만 명이 넘는 수감자 중 몇 백명의 죄수들이 탈주 시도. 대부분은 폴란드인, 소련인, 유대인들이었음. 그 중 150명 이하가 탈주에 성공.

- **가을** - 폴란드 저항 세력은 수용소와 관련된 정보를 런던의 폴란드 망명 정부에 알림.
- **11월 22일** - 첫 사형 집행으로 폴란드인 40명 사살.

1941년

- **3월 1일** - SS 총사령관 하인리히 힘러가 감독 차 아우슈비츠에 처음 방문. 수용소 확장과 Farbenindustrie 산업 공장 건설을 위해 만 명의 수감자 수송 등을 지시.
- **4월 23일** - 루돌프 회스 수용소 소장은 탈주를 시도한 10명의 죄수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벌로 아사형을 명령.
- **6월 6일** - 체코 정치범 첫 이송. 아우슈비츠 수용소로의 강제 이송 시작은 폴란드인이 아니었음.
- **9월 3일** - 첫 집단학살. 사이클론 B 가스를 이용, 600명의 소련군 포로와 250명의 폴란드인을 학살함.
- **가을** - 아우슈비츠 제 1수용소 내 첫 번째 가스실 가동.
- **10월** - 아우슈비츠 제 1 수용소 지역에 소련 전쟁 포로 수용소 개설. 파괴된 시골마을 브제진카 지역에 두 번째 수용소 아우슈비츠 제 2 수용소 비르케나우 건설 시작.

- **11월 11일** - ‘죽음의 벽’ 앞에서 첫 사형 집행으로 151명의 폴란드 수감자 사살.

1942년

- **연 초** - 가스실에서의 유대인 대학살 시작.
- **3월** - 프랑스에서 유대인 6만 9천 명, 슬로바키아에서 유대인 2만 7천명 이송 시작.
- **3월 1일** - 아우슈비츠 제 2 비르케나우 수용소 운영 시작.
- **3월 26일** - 아우슈비츠에 여자 수감자 2천명 수감. 수용소 역사상 전체 13만 명의 여자 수감자가 등록됨.
- **3월-6월** - 아우슈비츠 제 2 비르케나우 수용소 지역 근처에 임시 가스실 개설 시작.
- **봄** - 아우슈비츠 제 1수용소와 제 2 비르케나우 수용소 사이에 유대인, 폴란드인, 집시와 여러 국적 사람들이 아우슈비츠로 이송되었던 유대인 트랩 가동 시작.
- **5월** - 폴란드에서 유대인 30만 명과 독일 및 오스트리아에서 유대인 2만 3천 명 이송 시작.
- **5월 4일** - SS가 비르케나우 수용소에서 첫 번째 선별작업 실시. 선별된 자들은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함.
- **6월 10일** - 비르케나우 내 특별 수감지에서 폴란드 수감자 약 350명이 저항과 도주를 시도. 7명이 탈주에 성공하고, 300명 이상 사망.
- **7월** - 네덜란드에서 유대인 6만 명 이송 시작.

- **7월** - 치에친 근처 골레슈프에 위치한 벽돌공장 앞에 Golleschu 보조 수용소 운영, 이는 50개의 아우슈비츠 보조 수용소 중 첫 번째.
- **7월 29일** - 독일 소식통에 의해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의 유대인 대학살에 관한 소식이 연합국에 알려짐. 기사는 독일 사업가이자 반나치주의자 에드워드 슐츠가 작성. 연합국은 이미 1940년 가을부터 정기적으로 아우슈비츠 상황에 대한 정보를 받음. 폴란드 저항세력과 수용소와 수용소 근방의 활동세력과 지속적인 연락을 유지하던 런던 주재 폴란드 망명 정부가 이 정보를 제공했다.
- **8월** - 벨기에에서 유대인 2만 5천명, 유고슬라비아에서 유대인 10만 명 이송 시작.
- **10월 30일** - IG Farbenindustrie 합성고무공장 근처에 이후 아우슈비츠 제 3모노비츠 수용소로 명명된 보조수용소 '부나' 설립. 1942년부터 1944년까지 47개의 보조 수용소와 외부 소단위 수용소 설립. 이곳 수감자들은 대부분 독일 산업 공장에서 강제 노동에 동원됨.
- **10월** - 체코 보호국 모라바에서 유대인 4만 6천 명 이송 시작.
- **12월** - 노르웨이에서 유대인 첫 이송. 해상 및 육상 이송을 거쳐 700명 가량이 수용됨.
- **12월 13일** - 나치의 '인종청소 계획'의 일환으로 폴란드 자모이슈치즈나 지역 강제이주자의 첫 이송. - 독일군 점령자들에 의해 폴란드 영토에서부터 차레로 시작된 강제이주와 인종몰살에 의해 슬라브계(폴란드인, 러시아인, 백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등등)와 점령국 국민 약 5천만 명이 희생됨.

- **연 말** - SS 소속 군의관의 여자 수감자와 남자수감자로 불임 실험 시작.

1943년

- **2월 26일** - 비르케나우에 집시를 위한 집시 가족 수용소 설립.
- **3월** - 그리스에서 유대인 5만 5천 명 이송 시작.
- **3월 22일** - 6월 25일 - 수용소 본부는 아우슈비츠 제 2 비르케나우 수용소 내에 가스실과 연결된 4개의 화장장 설치.
- **6월 7일** - Kruppa 공장의 군무원들이 수용소 본부에서 임대한 기계를 조립하기 시작. 아우슈비츠 수용소 인근에는 수용소와 제휴한 100여 개의 독일 사업체가 자리잡고 있었으며, 대부분 -IG Farbeindustrie 나 Siemens같은 업체 -수용소 수감자를 강제노동으로 혹사시켜 부가수익을 얻음.
- **7월 19일** - 가장 많은 공개처형이 자행됨. 몇 명의 탈주자와 민간인과의 접선에 대한 보복으로 SS 대원들이 한 12명의 폴란드인 수감자를 교수형 처함.
- **9월 9일** - 비르케나우에 테레진의 게토 출신 유대인 수감을 위해 Theresienstadt 가족 수용소 개설.
- **10월** - 이탈리아에서 유대인 7만 5천 명 이송 시작.

1944년

- **5월** - 연합군 비행기가 아우슈비츠 항공사진 촬영 성공. 다음 달에는 가스실과 화장장 가동으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 촬영 성공. 8월에는 비르케나우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IG Farbeindustrie 인조고무 및 액화석유 공장에 폭격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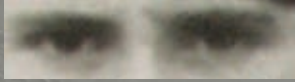
- **5월 16일** - 이송된 사람들을 아우슈비츠 제 2 비르케나우 수용소의 제 2, 제 3 가스실로 직행이 가능하도록 수용소 내부 열차 선로 측선을 개통. 헝가리에서 유대인 43만 8천 명 이송 시작.
- **7월 10일-12일** - Theresienstadt 가족 수용소 철거. 가스실에서 유대인 7천 명 학살.
- **8월** - 현 폴란드 우츠 지방에서 유대인 6만 7천 명 이송 시작.
- **8월 2일** - “ 집시 가족 수용소” 철거. - 집시 3천여 명 학살.
- **8월 12일** - 바르샤바 봉기로 체포된 폴란드인 1만 3천 명 이송 시작.
- **10월 7일** - 특수부대 저항운동. 저항운동 과정에서 SS 대원 3명과 특수부대 수용소 수감자 450명이 사망하자, 강제로 유대인 수감자에게 시신을 태우도록 함.
- **11월** - 가스실에서 유대인 학살 활동 보류.

1945년

- **1월 6일** - 독일 군법 회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폴란드인 7만여 명에 대한 마지막 사형 집행. 특수부대 저항운동 준비에 가담한 유대인 4명에 대한 마지막 공개 처형.
- **1월 17일** - ‘죽음의 행진’ 시작 - SS친위대는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6만여 명의 수감자를 끌고 나감.
- **1월 21-26일** - 독일군은 비르케나우에 있는 가스실과 화장장을 폭파시킴.
- **1월 27일** - 소련 군부대에 의해 아우슈비츠가 해방될 당시 수감자 7천여 명이 생존함.

M e m o r i a l

Auschwitz



Birkenau

S t a t e M u s e u m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추모의 장소와 박물관 보존을 위한 후원 요청

아우슈비츠는 인류 도덕상 풀리지 않은 고통입니다.

독일 나치의 강제 집단 수용소와 집단학살의 흔적은 인류가 저지른 암흑의 시대를 상기시킵니다.

1940년부터 1945년까지 독일 나치는 이곳에서 수많은 유대인들과 폴란드인, 집시(Rom과 Sinti), 소련군 포로,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지역과 건물, 그리고 희생자 역사 보존을 위한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해주실 분은 아래 계좌로 후원금을 보내주십시오.

은행명: Bank Pekao SA, Bielsko-Biała 지점

주 소: Bielsko-Biała ul. Grunwaldzka 40a

IBANL: PL15

계좌번호 : 1240 1170 1111 0000 24185 907

SWIFT: PKOPPLPW

감사합니다!

